

“구십년 삶이 허공 꽃과 같은지라”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지종 대종사 원적...법남 73세 · 세수 91세

대종사의 법명은 지종(知宗)이요 법호는 수산(壽山)이다. 1922년 3월 2일 전북 순창에서 출생했다. 수산 스님은 14세 때에 부친이 돌아가시자 삼년상을 모시고, 탈상하자마자 그 이듬해 17세 때에 모친이 돌아가시자 또다시 삼년상을 모셨다. 이에 인생무상을 깊이 느껴 출가를 결심했다. 19세에 백양사에 입산하여 1941년 20세에 만암 스님을 계사로 법안 스님의 위패상좌로서 사미계를 수지하고, 그 다음해 비구계를 수지했다.

수산 스님은 1944년 백양사 강원과정을 마치고 나자, 만암 스님이 백양사 산내암자인 청량원에 머물게 했다.

만암 스님은 “모두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고’나 ‘참구하거라’라고 말했다. 이에 수산 스님은 참구정진에 몰입했다.

스님은 1945년 동안거를 백양사 운문암, 1946년 하안거를 정혜사 만공 스님 회상에서 정진했다. 그 해 동안거부터 1948년 동안거까지는 인공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나주 다보사에서 용맹정진했다. 이 때 상기되어 수산 스님의 머리가 폭 익어버릴 지경이 됐다. 이를 본 인공 스님은 “화두를 놓아버라”고 했으나 수산 스님은 정진을 쉬지 않았다. 스님은 훗날 “화두를 놓을 때야 놓아지지 않는지라 그대로 화두일념에 맡겨두고 지냈다”고 말했다.

화두를 내는 중에 확연히 불조의 도리가 확연히 밝아졌다. 수산 스님은 “수중일월(袖中日月)이요 장악건곤(掌握乾坤)이라”고 토로했다. 스님은 1949년부터는 목포 정혜원에서 만암 스님을 조실로 서용 스님을 선원장으로 모시고 반선반작(半禪半作)의 안거정진을 했다. 1953년 가을에 만암

스님에게 입실해 ‘고해무견정 사해부주간 녘진언궁처 외연일수산(高今無見頂 四海不曾聞 念盡言窮處 巍然一壽山)’의 전법계와 함께 ‘수산’이라는 법호를 받았다.

수산 스님은 완도 신흥사, 영광 불갑사 포교당, 부안 개암사, 태백 흥복사 등 어려운 사찰 주지소임을 맡아 15여년 이상 가람수호와 포교에 진력했고, 백양사 본사가 어려워질 때마다 1966년, 1969년, 1973년 주지소임을 맡아 근검절약과 공심(公心)으로 해결해 놓고 미련 없이 결망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1975년 이후 목포 반야사에 머물며 청년포교에 힘을 기울였고, 영광 불갑사 가람을 중수했다.

1986년부터는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했고, 1989년부터는 종립학교인 광주 정광학원 이사 및 이사장을 역임하여 인재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스님은 1998년 불갑사 선원을 개원하여 수행도량의 면모를 갖추고 2001년 이후 10여 년의 복원불사를 지도해 오늘날 백제 불교조전성지 불갑사를 대대적으로 복원 중창했다. 영광 법성포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기념성역불사에도 크게 공헌했다.

2004년부터는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으로 주석하며 후학들을 제정했다.

수산 스님은 평소애 당산 스스로를 ‘물코막이’라고 지칭했다. 만암, 서용 두 어른 스님들의 말씀을 받드느라고 어려운 절, 어려운 곳만 떠돌아 다니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내는데 평생을 보냈다는 뜻이다. 수산 스님은 항상 공심(公心)과 신심(信心)을 강조했고, 반선반농(半禪半農)의 가풍을 평소 그대로 실천해 왔다. 스님의 하루 일과는 새벽 2시 반에 일어



3월 8일 수산지종 대종사 법구가 영광 불갑사에서 장성 백양사로 이운했다.

나서 간단한 요가 후에 예불을 모시고 아침공양시까지 좌선을 했다.

스님은 “중노릇 잘 하려면 조석에불 꼭 참석하고 하루 세끼 공양 빠지지 않으면 절반은 이룬 것이요, 일상 속에서 망상부리지 않고 화두 챙기면 성공하는 것이다. 중

벼슬 담벼슬 만도 못한 것이니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묶이지 말라”고 자주 말했다.

수산 스님은 2012년 3월 7일 오전 8시 44분 영광 불갑사에서 법남 73세, 세수 91세로 세원을 다하고 원적에 들었다.

정리=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백양사 방장 유시 놓고 ‘내홍’

진우 스님 새 주지 임명예 시몽스님 ‘임회 무효’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시몽)는 3월 3일 백양사 향적전에서 임회를 열고 총림 현안 타개를 위한 방장스님의 유시를 발표하고 유시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받들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방장스님의 유시에 따라 임회에서는 파행적 행정운영의 책임을 물어 현 주

지 시몽 스님을 경질하고 신임주지로 진우 스님을 추천했다. 또, 부방장에 광제 스님, 수좌에 지선 스님, 선원장에 무아 스님을 위촉했다.

이에 대해 주지 시몽 스님 측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3일 임회는 종무소와 상의 없이 불갑사 측이 주도한 임회 소집이었다. 방장스님의 환유가 깊었기에 최근까지 어떠한 대화도 나눌 수 없는 지경이었다. 따라서 임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총무원장 자승 스님, 황우석 연구소 방문

논문 조작 이후 처음 “연구 격려차원일 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3월 7일 오후 서울 오류동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찾아 황우석 박사를 격려했다.

이날 총무원장스님의 방문은 즐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이후로는 처음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날 방문에서 황우석 박사와 1시간 가량 환담을 나눴다.

또, 연구원 수술실에서 황 박사가 개복제 시술을 하는 장면을 15분간 지켜보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황우석 박사는 난관 안에 있던 난자 10개를 주사기로 채취하는 모습을 시연했으며, 자승 스님 일행은 채취한 난자를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했다고 전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날 방문 목적을 “황우석 박사 연구 격려차 왔다”고 짧게 답했다.

조동섭 기자

“재가자 불교 주체임 자각해야”

조계종 교육원장 현승 스님 화쟁아카데미 특강서

“스님들의 수가 적어 출가자 본연의 구도행보다 사찰 관리 업무에 투입되기 바쁘다. 재가자를 전문종무원으로 양성해 사찰 관리 업무 등을 맡겨야 한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승 스님은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3기 화쟁아카데미 입학식에서 ‘한국불교, 선 자리와 갈 길’을 주제로 특강했다.

스님은 “불교는 1700년 전 유입된 이래 지금까지 한민족의 세계관, 생산관, 윤리관 등 민족사상과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현승 스님은 “불교를 빼고는 한국의 윤리·문화 등을 말할 수 없다”며 “불교와 한국문화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살피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승 스님은 1700년의 불교 전통이 근래 100년 동안 단절·왜곡됐다고 진단했



다. 현대 한국불교가 근현대기를 거치며 전통과 단절돼 초기·아비달마·선불교·대승불교의 수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출가자로는 불교 개혁에 한계가 있다. 재가자들이 불교 주체임을 자각해야 한다. 재가자부터 불교정신·체제에 투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재난관리통합시스템 · 방재연구센터 등 설립

문화재청, 문화재관련 5개년 계획 발표...3조8348억원 투입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계획은 이전 계획인 ‘문화유산 2011(2007-2011)’의 추진성과 등을 바탕으로 2012-2016년 정책 비전과 그 실현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계획을 통해 도시화,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발달,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문화재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개발과 보존의 조

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 문화재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발굴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5개년 계획은 ①소통과 융합 ②수요자 중심 정책 ③세계화·정보화 ④특성화·지역화 ⑤가치창출과 확산의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 추진해 나갈 8개 정책 대과제와 109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

호사업 362억원 ▷고도육성 사업 1946억원 ▷무형유산 세계화와 보호 사업 161억원 ▷현대문화유산 보존 사업 85억원 ▷IT 재난관리 및 디지털 문화유산 구축(458억원) ▷문화재 보존관리 인프라구축(1231억원) 등 주요사업에 3조8348억원(국비 2조3825억원, 지방비 7179억원, 기금 734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 사업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의 문화재 보존관리계획 수립 지원과 도시기반관리 계획상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지원 검토 등이 포함된다. 조동섭 기자

고도육성 사업을 통해서도 경주 공주 부여 익산 고도 보존계획 확정에 따른 보존·육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무형유산 세계화와 보호 사업에는 무형 문화유산 전국조사, 국가급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 목록 작성, 무형유산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강구 등이 담겼다.

현대문화유산 보존 사업에는 자치단체별 근·현대문화유산 조사, 근·현대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등이 진행된다.

IT 재난관리 및 디지털 문화유산 구축 사업에는 문화재정보 상황실과 14개 시·도별 상황실을 연계한 재난관리통합시스템 구축, 강화 등이 추진된다.

문화재 보존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문화재방재연구센터 건립 등이 포함됐다. 조동섭 기자

구럼비 발파를 즉각 중지하라

강정마을 공사 강행 불교계 비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정부가 구럼비 바위 발파를 강행하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대표 최희, 이하 불씨넷)도 3월 8·9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구럼비 발파 중단을 촉구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강행된 구럼비 바위 발파행위로 일어난 결과는 복구될 수 없는 환경피해”라며 “합의되지 않은 구럼비 바위 발파를 비롯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환경적·문화적

·사회적 평가 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화쟁위는 성명서에서 “구럼비는 그 경관의 아름다움이나 지형의 희귀성 때문에 국내외에서 높은 보존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정부는 구럼비 발파를 즉각 중단하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불씨넷은 성명서를 통해 “제주 강정마을의 구럼비 바위 폭파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헌법과 생명평화를 짓밟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씨넷은 “정부는 즉각 모든 행위를 중지하고,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 종교계 등을 포함한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圓 寂

曹溪宗 元老 古佛叢林 方丈 壽山堂 知宗大宗師 元老會議葬

大韓佛教曹溪宗 元老 壽山堂 知宗大宗師께서 世緣이 다 하시어 佛紀2556(2012)年 3月 7日(陰 2月 15日)

午前 8時 44分 靈光 母岳山 佛甲寺에서 法臘 73年, 歲壽 91歲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門徒代表 禪覺 合掌

- 焚香所 : 長城 白羊寺
- 永訣日時 : 佛紀 2556(2012)年 3月 11日(陰 2月 19日) 午前 10時
- 永訣式場 : 長城 白羊寺
- 茶毘場 : 長城 白羊寺 蓮花臺
- 問議 및 連絡處 : 長城 白羊寺 ☎(061)392-7502

◎ 大韓佛教曹溪宗 元老 古佛叢林 方丈 壽山堂 知宗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